

광주FC, 제주 꺾고 시즌 첫 경기 승리 쓴다

내달 1일 오후 4시 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서 제주전 동계 전훈서 전술 강화...상대 전적 4승 무패로 우위

프로축구 광주FC가 올 시즌 첫 경기에서 제주를 상대로 승리를 노린다. 광주는 오는 3월 1일 오후 4시 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제주SKFC와 하나은행 K리그1 2026 1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올해 광주는 많은 변화를 맞이했다. 광주의 황금기를 이끈 이정후 전 감독이 수원삼성으로 떠났다. 그의 뒤를 이은 건 이정규 감독. 이정규 감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시즌 동안 광주FC 수석코치를 역임. 광주 축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적임자였다. 이로써 광주는 1년 만에 돌아온 이정규 신임 감독 체제에서 새롭게 출발한다. 기존 광주 축구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세밀함을 더해 올 시즌도 돌풍을 꿈꾸고 있다. 특히 1982년생인 이정규 감독은 K리그 112팀 중 최연소 감독이다. 코치 경력은 많지만, 1부 리그 감독직은 처음이기도 하다. 초보 감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러한 여론을 뒤집고 증명해 내겠다는 의지다. 이정규 감독은 지난 25일 열린 K리그 개막 미디어데이에서 새 시즌을 상징하는 사자상

어로 '수적천석(水洩穿石)'을 제시했다. 이 감독은 "구단의 규모나 이적시장에서의 여건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선수들의 땀방울이 모이면 결국 큰 바위를 뚫을 수 있다고 믿는다. 끈기와 조직력으로 시즌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는 태국 후아힌과 경상남도 남해에서 열린 전지훈련 동안 구슬땀을 흘렸다. 후아힌 1차 전지훈련에서 수비, 남해 2차 전지훈련은 공격 위주 전술을 더한 공수 밸런스 유지에 힘을 쏟으며 새로운 광주 축구를 예고했다. 올 시즌 팀 분위기는 더 끈끈해졌다. 주장 안영규를 비롯해 주세종, 김경민 등 베테랑과 신장우, 하승운, 최경록 등 중견급 선수들이 중심축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 정지훈, 안혁주, 김용혁, 김윤호, 공배현 등 젊은 선수들의 성장까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가 올 시즌 초반부터 분위기를 타기 위해서 제주와 첫 경기 승리는 중요하다. 광주는 제주 상대로 강하기에 자신감도 충분하다. 광주는 제주와의 역대 전적에서 12승 7무

8패를 기록 중이며, 최근 10경기에서는 7승 2무 1패를 거뒀다. 지난 시즌 4전 전승에 무실점까지 제주를 압도하며 '천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제주 원정에서 더 강하다. 지난 2016년 8월 14일 2-1 승리를 시작으로 제주 원정 10경기 연속 무패(5승 5무)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 역시 변화를 꾀하며 광주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파울루 벤투 감독을 보좌하며 대한민국 대표팀 16강 진출에 기여한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이 부임했다. 권창훈, 김동준, 이창민, 이발로, 남태희, 김윤성 등 수준급 선수들이 공수에 걸쳐 견제하기에 더 철저한 준비로 제주전 승리를 노린다. 광주는 지난 시즌 역대 최고의 시간을 보냈다. 창단 이후 처음으로 참가한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무대에서는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역대 사·도민 구단 중 ACL 무대에서 8강에 오른 건 광주가 최하다. 또 코리아컵에서는 구단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주축 선수들이 대거 이탈한 약재에도 K리그1 3년 연속 잔류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광주가 제주와의 올 시즌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 구단의 새 역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경 기자 hajong2@gwangnam.co.kr

7일 홈 개막전서 참여형 축제 두께 1000개 증정 등 이벤트

프로축구 광주FC가 다가오는 홈 개막전서 풍성한 행사를 통해 축제의 장을 연다. 광주는 3월 1일 제주SKFC와의 원정 1라운드를 시작으로 시즌의 포문을 연 뒤, 3월 7일 오후 4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인천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홈 개막전을 펼친다. 이번 홈 개막전은 '2026 광주의 심장이 다시 된다. 다시 하나로!'라는 콘셉트 아래 기획됐다. 개막을 기념해 동축 3층 광장에서 최근 인기를 끈 '두껍쿠(두바이 존드쿠기)' 1000개를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마련해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 전에는 롯데아울렛 광장에서 광주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전통 연희 공연과 마칭밴드 공연이 펼쳐져 개막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동축 광장에서는 AR 스니퍼 사격 체험, 1:1 축구 매치업 '배틀필드', 테이볼 축구(서브사커), '현상금을 잡아라' 등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가 운영되며, 성공 참가자에게는 경품 응모권이 제공된다. 먹거리 콘텐츠도 강화됐다. F&B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 업체와 함께 하는 '푸드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먹거리와 함께 경기 관람을 즐길 수 있게끔 진행할 계획이다. 신설된 '스타디움 투어'도 주목된다. 참가자는 라커룸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선수단 출근길 하이파이브에도 참여할 수 있다. 송하경 기자 hajong2@



이정후·김혜성, MLB서 멀티히트 WBC 대표팀 합류 전 기대감 높아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야구 대표팀 합류를 앞둔 코리안 빅리거들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시범경기에서 불방망이를 휘두르며 기대감을 높였다. 반면 한국계 선수들은 부진을 이어가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대표팀 주장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주전 외야수 이정후는 26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아메리칸 패밀리 필드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 방문 경기에 3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3루타 포함 3타수 2안타 1타점으로 맹활약했다. 그는 4연속 경기 안타 행진을 펼치면서 시범경기 타율을 0.333에서 0.417(12타수 5안타)로 끌어올렸다. 1회초 2사에서 밀워키 우완 선발 카를로스 로드리게스를 상대한 이정후는 풀카운트 접전 끝에 바깥쪽 낮은 체인지업을 건드렸으나 2루 땅볼로 아웃됐다. 첫 안타는 3-1로 앞선 3회초 공격 때 나왔다. 앞선 타자 브라이스 엘드리지의 투런 홈런으로 주지 않는 2사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이정후는 제구가 흔들리던 우완 피터 스트렐레키를 쉽게 공략했다. 볼카운트 1회에서 가운데 물린 싱킹 패스트볼을 받아쳐 우전 안타를 생산했다. 이정후의 방망이는 식지 않았다. 7-1로 달아난 4회초 공격 2사 1루에서 바뀐 왼손 투수 제우스 브로키를 상대로 우익선상 깊숙한 적시 3루타를 터뜨렸다. 볼카운트 1볼-1스트라이크에서 몸쪽 낮은 슬라이더를 정확히 받아쳤다. 이후 이정후는 대주자와 교체돼 경기를 마쳤다. 류지현 WBC 대표팀 감독에 따르면, 이정후는 27일 일본 오사카로 이동해 대표팀에 합류한다. 28일 일본으로 이동하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멀티플레이어 김혜성도 이날 맹활약했다. 그는 애리조나주 스크트데일 솔트리버 필드 옛 킥스터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원정 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 2도루를 기록했다. 시범경기 타율은 0.500(10타수 5안타)으로 뛰었다. 그는 1회초 선두타자로 출전해 지난해 13승을 거둔 상대 팀 우완 선발 잭 갈런을 상대로 우전 안타를 쳤다. 볼카운트 2볼 1스트라이크에서 몸쪽 체인지업을 잘 잡아당겼다. 그는 곧바로 2루 도루에 성공한 뒤 물런 러시의 1루 땅볼 때 3루로 진투하는 등 적극적으 뛰었다. 2-3으로 뒤진 2회초 2사 3루에서는 바뀐 우완 투수 트레이 제이미슨을 상대로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으나 5회초 공격에서 두 번째 안타를 때렸다. 김혜성은 무사 1. 2루의 볼카운트 1볼 1스트라이크에서 우완 투수 달린 레이가 바깥쪽 낮은 체인지업을 중견 적시타로 연결했고 또 한 번 2루 도루에 성공한 뒤 득점도 했다. 그는 6-3으로 앞선 5회말 수비에서 교체되며 경기를 마쳤다. WBC 대표팀에 합류하는 한국계 선수들은 대체로 부진했다. 제마이 존스(디트로이트 타이거스)는 플로리다주 레이클랜드 조키 머헨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홈 경기에서 3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무안타로 참땀했다. 그는 올 시즌 4차례 시범경기에서 아직 안타를 때리지 못했다. 존스는 1회 첫 타석에서 지난해 KBO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된 코디 폰세를 상대로 3루 땅볼로 잡혔다. 오른손 투수 데인 더닝(시애틀 매리너스 산하 트리플A 터코마 레인어스)는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 스타디움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방문 경기에서 다섯 번째 투수로 등판해 1%이닝 동안 3피안타 2볼넷 3실점으로 흔들렸다. 연합뉴스



태국 후아힌에서 진행된 2차 전지훈련에서 광주FC 선수단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FC

밀라노 코리아하우스 3만여명 방문 "역대 동계 올림픽 중 최고 흥행"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 올림픽 기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운영한 '코리아하우스'에 역대 최다 관람객이 방문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18일 동안 운영한 코리아하우스에 총 3만2656명이 찾았고, 하루 평균 방문객은 약 1800명에 달했다"며 "역대 동계 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중 최고 기록"이라고 전했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밀라노 시내의 유서 깊은 건축물인 '빌라 네키 캄필리오'에 코리아하우스를 조성해 K-컬처 홍보 거점으로 활용했다. 한국관광공사와 CJ,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등은 다양한 체험 행사와 상품 판매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렸고, 이탈리아 현지자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으로 인기를 끈 까지 호랑이 배지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해 약 65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코리아하우스는 K-스포츠 외교 활동의 주 무대로 활용됐다. 개관식에는 스포스 카르탈로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 등 IOC 위원 13명이 참석했고,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주니어 IOC 부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연합뉴스

곽노정 대한핸드볼협회장 "K핸드볼 국제 경쟁력 높인다"

정기총회서 핵심과제 논의...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정조준 최강전력 국가대표 구성·전략분석 강화·멘탈트레이닝 등 집중

대한핸드볼협회가 2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2026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국가대표팀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곽노정 대한핸드볼협회장 겸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핸드볼협회장, 조영신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 이계정 여자 대표팀 감독 등 국내 주요 핸드볼인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오는 9월 열리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국가대표팀의 전력을 빠르게 끌어올려 과거의 K핸드볼 위상을 회복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국 국가대표팀은 지난해 6월 충북 청주에서 열린 한·일전에서 남녀 동반 승리했으나, 이후 열린 국제대회에서는 기대에 부응하는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여자 대표팀은 지난 연말 독일에서 열린 세계선

수권에서 8강에 들지 못했다. 남자 대표팀은 지난 1월 쿠웨이트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에서 아시아 최강 카타르를 이기는 등 4승 1무 1패로 선전했으나, 아쉽게 4강 진출에는 실패한 바 있다. 이에 협회는 한국 대표팀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측면에서 경쟁력 보강이 시급한 시점이라 판단, 세 가지 방향으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도출했다. 먼저 핵심선수들이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선수소집 프로세스 정

비 및 각 구단 협조체계 강화, 협회 의무위원회의 전담 의료지원 등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해 '최강전력 국가대표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어 일본, 중동 등 아시아권 경쟁국들의 전력을 분석하는 전문 팀을 구성하고 관련 데이터 확보 역량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 K핸드볼만의 '불굴DNA'를 복원하기 위해 멘탈 트레이닝과 체력 보강에 힘을 쏟기로 했다. 곽노정 대한핸드볼협회 회장은 "K핸드볼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재도약을 위해 전국 핸드볼인이 원팀으로 힘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함께 앞으로 스포츠도 진인, 한일 통합리그와 같은 국제협력 등 여러 과제에 도전하며, 핸드볼이 국민계 감동을 받고 지지와 성원을 받는 스포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경 기자 hajong2@



송하경 기자 hajong2@